

자료 2024-06-14 / SINCE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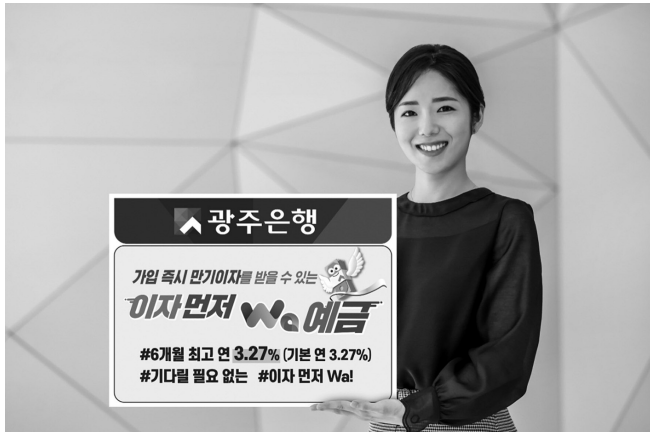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 가입 즉시 만기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자먼저Wa예금’ 출시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만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가입 즉시 만기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자먼저Wa예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자먼저Wa예금’은 가입기간이 3개월, 6개월로 구성되어 단기자금 관리에 유용하며, 기본금리는 3개월 연 3.25%, 6개월 연 3.27%이다. 이자는 가입 시 연결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즉시 선

입금되고, 세금은 예금 해지 시 원금에서 원천징수된다.

광주은행 디지털본부 박종춘 부행장은 “상품 가입 시점에 이자를 먼저 지급함으로써 이자를 더 능동적으로 굴릴 수 있는 재테크적 요소가 가미된 신상품을 출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비대면 금융상품 기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재기부하며 지역사랑 나눔 실천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본점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을 비롯한 1,200여명의 임직원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받은 답례품을 재기부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재기부’ 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임직원 1,200여명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했으며, 광주·전남 지자체에 총 1억 3천 3백

만원 상당을 기부하여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지역사랑에 대한 임직원들의 마음을 더 많은 지역민과 함께 나누고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재기부하는 의미있는 행사를 가지게 되었다”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기부 참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며 지역 대표은행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

◆ 서구 청소년 체험활동 후원금 전달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가 4일 청소년 체험 확대를 위해 광주 서구청에 '꿈틀 프로젝트' 후원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은 이날 오전 서구청에서 진행됐으며 김이강 서구청장,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박흥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는 "광주신세계는 현지법인으로 관내에 있는 서구청과 함께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꿈틀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에스팩

◆ 김선광 대표 '차 포장재' 기탁



전남 보성군은 22일 '2024년 보성군민의 상' 수상자인 디에스팩 김선광 대표가 보성차생산자조합과 보성 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00만원 상당의 차(茶)포장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성차생산자조합'은 차별화된 포장 패키지와 철저한 품질관리로 보성 차 및 지역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도모하고 (주)디에스팩은 포장재 개발 연구 및 기술 지원 등으로 지역 기업과 상생 및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광 대표는 “고향이 있어 지금의 내가 있고 미래의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직접 만든 물건이 보성 차 산업의 부흥을 이끌고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해양조

◆ 오월정신 교감 '미닝아웃' 홍보 마케팅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나눔과 희생의 오월정신을 통한 ‘미닝아웃’ 홍보 마케팅에 나섰다.

미닝아웃은 신념을 의미하는 미닝(meaning)과 밝힌다는 뜻의 ‘커밍아웃(Coming Out)’의 합성어로, 소비를 통해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신념·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광주를 대표하는 두 스포츠 경기장에서 열린 이벤트를 통해 5·18 당시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가 지역민의 마음속에 오랜 시간 머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해는 광주전남의 다양한 문화를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는 색다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전KDN

◆ 보안계기 상호운용성 자율시험장 설명회 개최



한전KDN(사장 김장현)이 지난 4일 나주 본사 교육관 비전룸에서 보안계기 상호운용성 자율시험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5일 전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AMI(지능형원격검침인프라) 보안계기 관련 중소기업 중사자 등 35명이 참석하여 AMI 품질시험센터와 보안계기 상호운용성 시험장

(이하, 자율시험장)에 대한 설명, 자율시험장 활용 절차 및 방법, 동반 상생 프로그램 소개, 간담회와 AMI 품질시험센터 탐방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2024년 AMI 구축 마무리 시점에 보안성이 확보된 안전한 전력망, AMI 데이터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장비 개발과 新 서비스모델 발굴은 필수”라며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통한 안정적 AMI 산업 구축을 선도하는 에너지 ICT 플랫폼 전문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 새로운 감사제도 도입...“리스크 예방·경영성과 제고”



한전KDN(사장 김장현)은 최근 서울 인천지역본부 5층 영상회의실에서 정보보안 유관 협력사를 대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청렴소통간담회’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한전KDN 보안사업처 및 협력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동영상 시청 등 청

렴·윤리교육을 시행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체감하고 있는 업무 개선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자유토론으로 청렴문화와 보안사업에 대한 상호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동반상생 및 에너지산업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사와의 긴밀한 만남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체감하는 사항들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재하도급 모니터링 강화 등 산업 전반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더욱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전KPS

◆ 전국 32개 공기업 ‘경영 성과’ 1위 석권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서 전국 32개 공기업의 경영 성과를 조사·분석한 결과 총점 800점 중 647.5점을 획득하며 전체 1위에 올랐다고 9일 밝혔다.

한전KPS는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전국 공기업 32곳의 경영 성과를 조사·분석해 발표한 결과 총점 800점 만점 중 647.5점을 획득하면서 전체 1위에 올랐다고 3일 밝혔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 에너지정책에 발맞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발전 정비시장 확대와 5대 신성장 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 성장하는 100년 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윤리경영 위해 주먹 불끈 쥐다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윤리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전KPS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본사 대회의실과 인재개발원에서 제1회 윤리지킴이 컨퍼런스 '지켜줘! 윤리'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회사 윤리경영 혁신을 위한 윤리지킴이 다짐 결의에 이어 최신 윤리경영

동향 공유, 윤리사례 소통·토론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윤리에 대한 인식도를 제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홍연 사장은 "경영의 근간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는 윤리성인데 이를 단순히 아는데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 체계 구현을 위한 제도 혁신과 실천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윤리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알림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수용 팀장

● e-mail : gjef3425@naver.com

<제1651회 금요조찬 포럼>

광주 비엔날레 그리고 국제 미술 중심도시 광주

(박양우 대표)

1651회 금요조찬포럼은 박양우 비엔날레 대표를 초청하여 「광주 비엔날레 그리고 국제 미술 중심도시 광주」를 주제로 광주 비엔날레와 광주가 국제 미술 도시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미술 행사를 비엔날레라고 합니다.

그런데 2년마다 한 번 열리는 국제 미술 행사를 전부 비엔날레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엔날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미술 행사가 1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엔날레가 되려고 하면 미술사에 돌맹이를 던질 만한 담론을 제공해야 합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전 세계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비엔날레로 명성을 유지하는 것도 미술계에 담론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광주 하면 아는 사람이 없지만 미술 하는 사람들은 광주 비엔날레 하면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에 작년 외국인이 2만 7천명이 왔다 갔습니다. 올해 비엔날레에서 39개국 파빌리온을 개최하면 약 4만명의 외국인이 방문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성과를 이루고 있지만 한편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광주가 문화 중심도시를 선포하고 아시아문화전당 하나 세워진 것 외에 별로 진척된 게 없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예술가들이 광주에서 공연 한번 하고, 전시회 한번 하는 것이 우리가 유럽, 미국에서 하는 것만큼 뿌듯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광주가 문화예술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비엔날레 같은 미술사에 담론을 던져 줄 행사도 중요하지만, 상업성도 중요합니다. 3년 전부터 세계 3대 아트페어를 운영하는 프리즈가 서울에서 아트페어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에는 700억의 매출을 올리고 부산에서는 746억 매출로 서울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광주의 아트페어는 거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아트페어가 성공하지 않고서는 세계적인 미술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광주가 미술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립, 시립 미술관이 세계적인 활동을 해야 하고, 아트페어도 활성화되고, 비엔날레가 삼박자를 갖춰야 비로소 광주가 미술 수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 광주시와 광주시민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광주가 문화 수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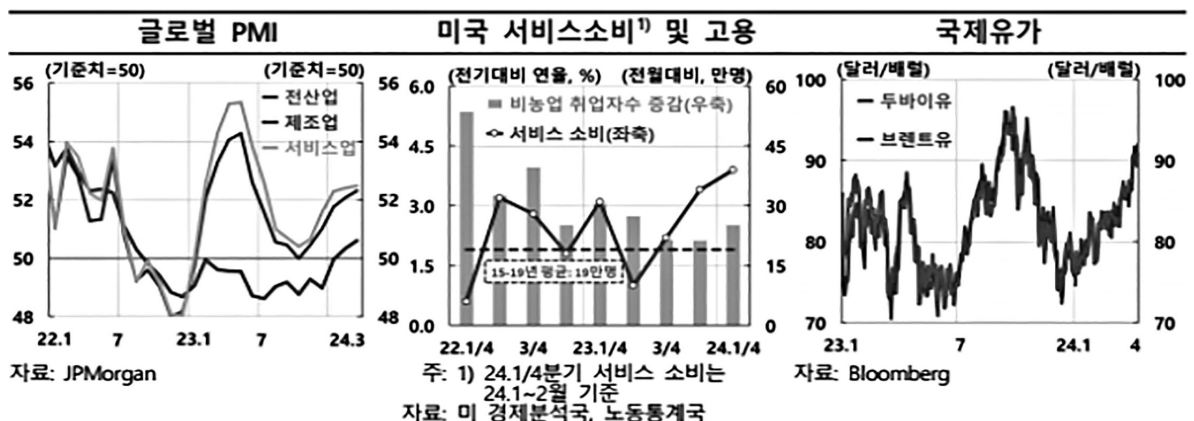
1. 경제 동향

- ▶ 금년중 국내경제는 소비가 완만히 회복되는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흐름을 지속할 전망이다.
- ▶ 물가상승률은 완만한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둔화속도는 국제유가와 농산물가격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받을 것이다.

I. 세계경제

□ 세계경제는 그간의 통화긴축 정도에 비해 양호한 성장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디스인플레이션 진전과 그에 따른 금융여건 완화가 주요국의 공통된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미대선, 중동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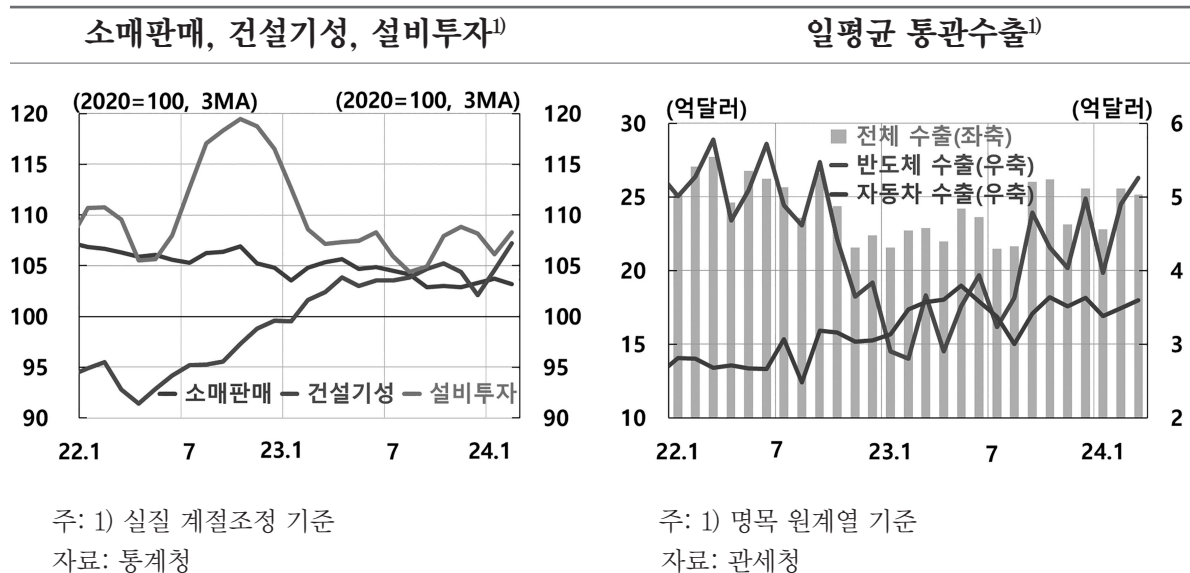
- **미국**은 금년 1/4분기중 소비를 중심으로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견조한 경기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유로지역**은 금년 들어서도 성장흐름이 미약한 가운데 일부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하반기 이후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은 부동산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수출 개선, 정부의 경기 부양조치 등에 힘입어 4%대 중반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세계교역**은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작년 4/4분기부터 반등하였으며 앞으로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제유가**브렌트유는 OPEC+ 감산연장,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높은 90달러 내외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Ⅱ. 국내경제

□ 국내경제는 높아진 금리와 생활물가 영향으로 소비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반도체 경기상승, 美 경제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금년 GDP성장률**은 지난 전망 수준 2.1%에 대체로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 **민간소비**는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재화소비를 중심으로 모멘텀이 약하나 향후 가계 소득여건이 나아지면서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연초 일시 반등하였으나 향후 그간의 신규 수주 및 착공 위축 영향이 본격화됨에 따라 감소 흐름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1/4분기중 물류차질 영향 등으로 다소 주춤한 모습이나 앞으로는 IT경기 회복 등으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재화수출**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IT부문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성장경로는 AI 확산 등 IT경기 개선 속도, 국내 부동산PF 구조조정 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추세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당분간 그 흐름은 매끄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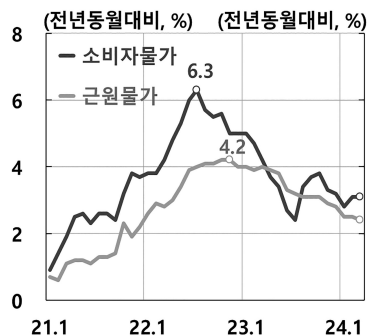
- 최근 **근원물가 상승률**은 당초 예상대로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는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

률은 유가농산물가격 상승으로 둔화흐름이 주춤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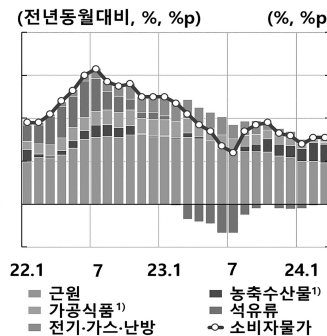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	23.10월	12월	24.1월	2월	3월
▶ 소비자물가	3.8	3.2	2.8	3.1	3.1
▶ 근 원 물 가	3.1	2.8	2.5	2.5	2.4

-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은 지난 전망 수준 소비자물가 2.6%, 근원물가 2.2%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농산물가격 추이, 국내외 경기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큰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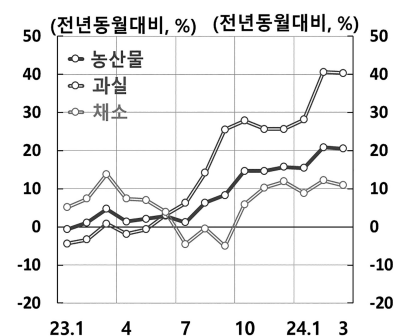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기여도 농산물가격 상승률



자료: 통계청



주: 1) 근원품목 제외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자료: 통계청

- 경상수지는 수출이 IT경기 회복, 미국의 높은 성장세 등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데 반해 수입은 감소세를 지속함에 따라 흑자폭이 늘어날 전망이다.

- 금년중 경상수지는 당초 예상520억달러보다 흑자폭이 커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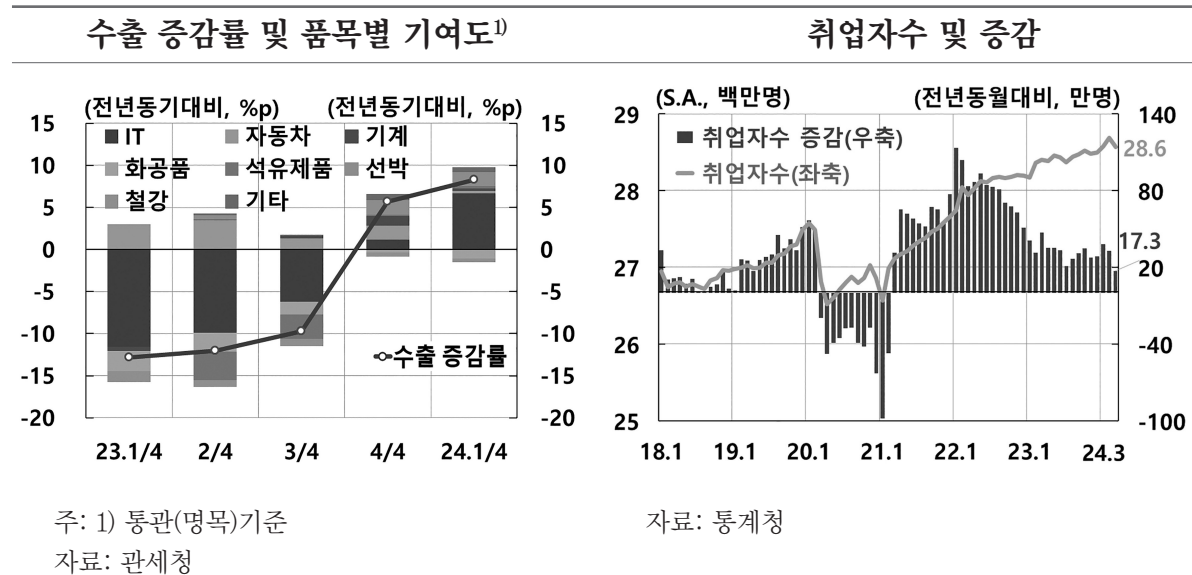
- 상품수지는 수출이 개선흐름을 이어가는 반면 수입이 원자재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감소폭이 커짐에 따라 흑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수지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데 힘입어 적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고용은 취업자수가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취업자수는 서비스업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제조업도 증가로 전환하였다. 향후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내수부진으로 점차 둔화되었으나, 여성·고령층의 노동공급 증가세 지속으로 둔화흐름은 완만할 전망이다.



Ⅲ. 경제전망

- ▶ 금년중 국내경제는 수출의 회복모멘텀이 강화된 데다 소비 흐름도 당초 예상보다 개선 됨에 따라 2월 전망2.1%을 상당폭+0.4%p 웃도는 2.5% 성장할 전망이다.
-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 등으로 상방압력이 커졌지만, 완만한 소비 회복세 등을 감안하면 연간 전체로는 2월 전망치를 조정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2023	2024	2025
GDP 성장률	1.4	2.5 [0.4%p↑]	2.1 [0.2%p↓]
소비자물가 상승률 (근원물가)	3.6 3.4	2.6 [유지] 2.2 [유지]	2.1 [유지] 2.0 [유지]

□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었으나 글로벌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커지고 주요국 금리인하 기대는 다소 후퇴하였다. 대내적으로는 1/4분기중 성장모멘텀이 강화 되었으나 내수 반등에는 일시적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

- 대외여건을 보면, 글로벌 경제가 예상보다 양호한 모습을 이어감에 따라 주요국 성장 전망이 상향조정되었다.
- 글로벌 제조업 경기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개선조짐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IT 경기는 AI

투자수요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상승세가 빠를 것으로 보임.

- 주요국 물가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그 속도는 국가별로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美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다소 후퇴한 반면 일부 중앙 은행은 금리인하를 시작했거나 조만간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유가는 중동분쟁 전개 상황에 따라 큰 폭으로 등락했으며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주로 영향받아 지난 전망에 비해 상방압력이 다소 커졌다.
- 대내적으로는 1/4분기 내수가 소비·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예상을 상회함에 따라 금년 중 전망경로가 상향 조정되었으나 이 같은 증가에는 일시적 요인*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2/4분기중에는 조정국면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 세계경제는 앞으로 완만한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은 소비 및 투자 증가세 지속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유로지역은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부동산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 개선과 정부 경기부양책으로 금년 성장률이 4%대 후반으로 전망된다.
- 세계교역은 상품교역을 중심으로 개선*될 전망이며, 특히 우리 수출대상국의 유효수입 수요는 이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 세계교역 신장률(IMF WEO, 24.4월) : 23년 0.3% → 24년e 3.0% → 25년e 3.3%

** 10대 수출대상국# 유효수입수요(") : 23년 -0.8% → 24년e 3.8% → 25년e 3.0%

미국, 중국, 유로지역,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인도, 호주

- 앞으로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 상존 등 상방요인과 非OPEC+ 증산 등 하방 요인이 엇갈리면서 80달러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금년중 국내경제는 지난 2월 전망2.1%을 상당폭+0.4%p 웃도는 2.5% 성장할 전망이다.

- 성장흐름을 보면, 2/4분기에는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비*는 둔화되는 한편 순수출** 기여도가 축소됨에 따라 조정되었다가 하반기에는 다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소비는 2/4분기 조정을 거친 후 하반기중 물가 둔화, 기업수익 증가 등에 따른 가계 소득여건 개선에 힘입어 점차 회복세가 뚜렷해질 전망

** 2/4분기 순수출 기여도는 수입이 큰 폭 증가함에 따라 전분기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대외여건 개선에 따른 견조한 수출증가세가 여전히 경기개선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 높아진 환율 수준 등으로 상방압력이 다소 커졌으나, 소비 회복세가 완만하고 정부대책이 물가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월 전망 headline 2.6%, core 2.2%에 비해 연간 상승률을 조정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4월중 CPI 상승률은 근원물가 상승률이 소폭 둔화3월 2.4% → 4월 2.3%된 가운데 농축수산물가격 오름세도 축소되면서 전월보다 하락3.1% → 2.9%

■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대 후반 수준을 나타내다가 하반기 중 2.5%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 경상수지는 올해 600억달러로 당초 전망 52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 IT경기 회복, 미국의 강한 성장세 등에 따른 수출 호조에 힘입어 흑자폭*이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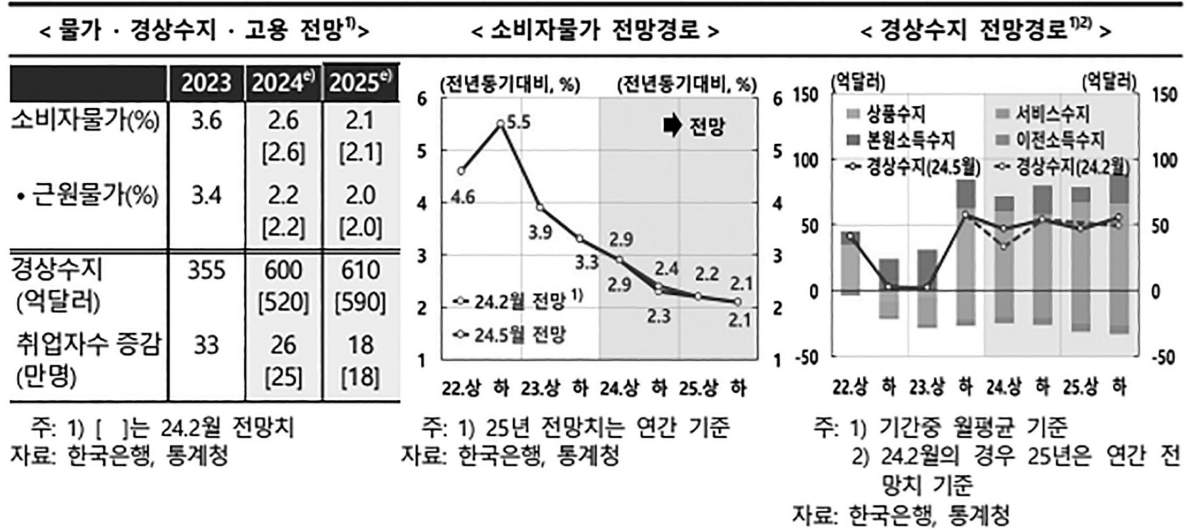
* 경상수지(월평균, 억달러): 23.3/4분기 52 → 4/4 62 → 24.1/4 56

** 무역수지("): 23.3/4분기 21 → 4/4 32 → 24.1/4 30 → 4월 15

□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26만명으로 지난 전망 25만명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 서비스 부문의 고용 증가세가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둔화되겠으나 업황 개선 등으로 제조업 고용이 회복되고 여성·고령층의 노동 공급이 지속되면서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지난 전망 수준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실업률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던 전년2.7%에 비해 다소 상승한 2.9%를 기록할 전망이다.



- 향후 전망경로 상에는 주요국 성장·물가흐름과 통화정책 운용, IT경기 확장 속도,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물가의 경우 기업의 가격인상 확산정도, 공공요금 조정 시기 등도 리스크요인으로 잠재해 있다.
- 이처럼 전망경로 상의 불확실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지정학적 갈등시나리오 1,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시나리오 2와 관련한 대안적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 시나리오 1(낙관) 이스라엘·하마스간 종전 협상이 타결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갈등도 진정되는 경우 부정적인 공급충격이 완화되면서 올해 성장률은 기본전망 대비 +0.1%p 상승하고 물가상승률은 -0.1%p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 시나리오 1(비관) 중동지역 분쟁이 상당히 악화되고 러·우 전쟁의 규모도 확대되는 경우,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 및 금융여건 악화로 인해 금년중 성장률은 -0.2%p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은 +0.3%p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 시나리오 2「글로벌 긴축기조가 장기화」되는 경우, 글로벌 교역 및 성장세는 둔화되고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은 -0.1%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긴축기조 장기화에 따른 환율상승과 국내 경기둔화의 영향이 엇갈리게 작용하면서 대체로 기본전망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분석된다.

GDP 성장률			
(전년대비, %)	2023	2024 ^{e)}	2025 ^{e)}
기본 전망	1.4	2.5	2.1
시나리오 1 (낙관)		+0.1	+0.3
시나리오 1 (비관)		-0.2	-0.5
시나리오 2		-0.1	-0.2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대비, %)	2023	2024 ^{e)}	2025 ^{e)}
기본 전망	3.6	2.6	2.1
시나리오 1 (낙관)		-0.1	-0.1
시나리오 1 (비관)		+0.3	+0.2
시나리오 2		-	-0.1

자료: 한국은행

- 종합하면, 국내경제는 IT경기 상승, 주요국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수출이 견조한 가운데 소비 성장경로도 상향 조정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 물가상승률은 추세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물가목표 수렴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향후 흐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본 자료는 한국은행 5월 경제전망 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2024년도 광주경총 기업지원 사업안내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2024년도 광주경총 기업지원 사업안내

NO	사업명	지원대상	기업지원(금액)	문의 (062)
1	청년 일도약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인 이상 우선지원기업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간 : 1인 720만원 (월60만원) 2년후 : 1인 480만원 	716-3424
2	뿌리 일도약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지역 뿌리기업 중 청년,신중년, 중장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만 35세 ~ 49세 채용 시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간 : 1인 720만원 (월60만원) 	716-3503
3	중장년 내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인 이하 중소기업 만 40세 이상 재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자 이전직 상담, 생애설계 등 기업별 무료 상담 	609-8964
4	청년성장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지역 신규 인력채용 기업 (관리자 및 청년층 신입직원) 신규 채용기간: 최근 1년 이내 청년층 연령: 만 15세~3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친화 조직문화 및 직장 온보딩 프로그램 제공 	654-3427
5	북구 굿잡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광역시 및 북구 일대 중소기업 광주광역시 구직자(취업준비 청년, 여성, 중장년 등) 지역 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혹은 지역 인재를 구인하는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일자리 동영상 제작 취업매칭 지원 고용부 워라밸 인증지원 	654-3427
6	공동안전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위 협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월 1회 이상 방문 컨설팅) 안전관리 담당자 교육 	716-3501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